

전북도 전년도 '살림살이' 공개

총 세입규모 6조4727억원 외부채무 1003억 전액상환 각종 재정운영 평가서 인센티브 213억원 확보

전북도는 30일 '2017년 전라북도 재정공시(16년 회계연도 재정운용)'를 통해 지난 한해 도 살림살이를 공개했다.

2016년 도의 총 세입규모는 6조 4,727억원으로, 2015년 대비 3,728억원(6.1%)이 증가했다.

세입 재원별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조 1,002억원,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3조9,45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조 4,271억원이다.

지방세는 9,693억원으로 이중 취득세(4,665억원)와, 지방소비세(2,668억원)가 가장 큰 비중(75.7%)을 차지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난해 해 51만5천보다 5천원이 증가한 52만

원이다.

도민을 위해 지출한 총 세출규모는 6조 1,411억원으로 전년(5조 7,670억원) 대비 3,742억원(6.5%) 증가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사회복지(1조 5,314억원) 분야가 31.2%로 가장 높고, 농림수산(5,534억원) 19.2%, 일반공공행정(5,534억원) 11.3%, 국토 및지역개발(2,807억원) 5.7%, 문화및관광(2,491억원) 5.0% 순이다.

주민 1인당 지출액은 262만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212만원 보다 50만원이 높다.

사회복지비로 주민 1인당 지출한 예산은 82만원이고, 도의 사회복지비중(31.24%)은 유사 지자체 평균(28.59%) 보다 2.65%높아 전국 최고의 수준이다.

2016년 말 기준, 도가 운영하고 있는 12개 기금의 조성액은 3,093억원으로, 2015년 대비 170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법정기금으로는 재해구호기금(209억원), 재난관리기금(249억원), 식품

진흥기금(99억원) 3개 기금이 있으며,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1,978억원), 농수산발전기금(252억원), 체육진흥기금(91억원) 등 9개 기금이 있다.

도 채무액은 전년(7,898억원)보다 608억원이 감소한 7,290억원이다.

주민 1인당 채무액은 전년 42만원 보다 3만원 감소한 39만원이다.

일반회계 채무는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의 자동차 신규 이전 등록 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분 7,290억원만이 채무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도는 지난해 외부차입금 1,003억원을 전액 상환하여 외부채무 제로화를 달성하는 등 체계적인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도가 지난해 중앙부처로부터 재정 운용분야 평가에서 받은 인센티브는 213억원이다.

북관기금 운영 89억원, 지특회계 운영 121억원, 상반기 조기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 2억원, 하반기 재정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6천만원 등에서 우

수한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6%, 의원 1인당 의회경비는 74백만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7500만원)보다 1백만원 낮다.

채납액은 전년(237억원) 대비 158억원이 증가한 395억원으로, 이는 2016년 감사원 감사 결과 취득세 157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2017년 5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 취소되어 채납이 해소됐다.

재정여건을 알 수 있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결산 기준으로 변경됐다.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 집계 산정 중에 있어, 오는 10월에 별도 공시할 예정이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교부세 확보, 자체세입 확충 등의 노력으로 재정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세출구조 조정을 위해 보조사업 평가, 보조금 관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야생동물 보호망 구축 시급

연간 피해액 18억원 달해 전북연구원, 세부대책 제언 컨트롤 타워 운영 등 제시

최근 천연기념물 로드킬, 철새 도래에 따른 질병 위험 등 야생동물 보호 관리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야생동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30일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위한 전라북도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방안 '정책브리프'를 통해 최근 도내 야생동물 이슈를 분석하고 전략 및 세부대책을 제언했다.

남정 연구위원(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은 우선 '(가칭)전라북도 야생동물 보호관리 협의회'와 같은 상시 협의체를 구축하여 도내 야생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담당행정, 야생동물 유관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포럼형태 협의회를 통해 이슈별 세부대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정책브리프는 전북에서 10년간 900여건의 로드킬이 있었다고 설명, 전국 25.9%의 비중을 차지하는 철새도래 개체수, 농작물과 전력시설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지난해 18억 6400만원

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책브리프는 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야생동물 보호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건전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멸종위기종 보호관리, 관련시설 확충 등 기반강화, 거버넌스의 3대 전략 15개 세부사업을 제안했다.

보호관리 전략 세부사업으로 ▲ 전라북도 야생동물 보호종 지정 및 보호지역 확대, ▲ 생태 연결성 확보를 위한 생태 네트워크 구축, ▲ 안전관리 측면의 로드킬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 피해 저감을 위해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의 지속적 확대, ▲ 직간접적 야생동물 피해 방지사업 추진, ▲ 교란생물 관리사업 등을 제시했다.

기반강화 전략으로는 ▲ 멸종위기종 보호관리 및 전시시설 설치, ▲ 서식지의 보전기관 확대사업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 국립생태원 연계사업, ▲ 야생동물 복원 및 브랜드 사업 등을 도출했다.

거버넌스 전략으로는 ▲ 바이오블리츠 확대 추진, ▲ 전라북도 야생동물 보호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 야생동물 질병 신고체계 구축, ▲ 질병관리 네트워크 구축/운영, ▲ 조류독감 안전농장 시범사업 등이다. /김진성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30일 오전 전북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에 참석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악성 가축질병 꿈썩마” 전북도, AI·구제역 등 대응 방역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전북도는 AI·구제역 등 가축질병 관련 도,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방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축질병 대응 담당자 전문교육'을 31일~9월1일(2일간)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AI 등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확산 방지 및 조기근절을 위해 실시된다. AI·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부서간 협의를 통해 본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가축질병 대응 담당자 전문교육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도, 전북대 수의대, 대한적십자사, 농협 등에서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험 많은 전문가를 강사진

으로 선정했다. 의심축 신고부터 살처분,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 및 방역대응사례, 살처분 참여자의 재난심리지원 업무 교육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교육을 통하여 AI·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으로 청정전북 축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가금산업의 활성화 도모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내 뎅기열 확진환자 첫 발생 백신·치료제 없어 예방이 최선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8일 도내에서 뎅기열 환자가 급급되어 첫 확진됨에 따라 해외여행시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에서는 도내 보건소 및 병원에서 의뢰된 해외 여행력이 있는 원인 불명의 발열을 나타내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치쿤구니아열과 같은 해외유입 질병들에 대해 확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뎅기열 확진환자가 도내에서 발생했다.

뎅기열은 플라비 바이러스속에 속하는 뎅기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모기가 사랍을 무는 과정에서 전파된다.

감염자 중 약 75%정도가 무증상이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대부분 비특이적 증상, 급성 열성 증상이 나타난다.

뎅기열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위험국가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으로 여행시 모기기피제 등과 같은 모기 퇴치 제품사용과 외출 시 가능한 밝은 색의 긴팔 및 긴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사회교과서 한지로 만든다

전주지역 74개 초등학교에 제작·보급

전주지역 초등학교들이 배우는 사회교과서 제작에 전통 전주한지가 사용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전주한지에 대해 배우고 친근감이 높아져 한지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와 (재)한국전통문화재단은 전주전통한지 지원 시범사업으로 전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전주지역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지역교과서)를 전주한지 일부를 포함 제작했다.

교과서 제작에 전주한지가 일부 사용된 이 사회교과서는 전주시 74개 초등학교에 보급됐다.

특히, 이번 교과서 제작에는 약 3만여장의 전주한지가 사용됨으로서

한지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전주중앙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지교과서 제작 시범사업을 했으며,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 전주시 74개 모든 초등학교에 지급되는 사회교과서의 일부를 전주한지로 제작하게 됐다.

임현아 한지산업지원센터 연구개발실장은 “전주시에서는 전주지역 사회를 소개하는 초등 사회교과서에 지역전통문화산업인 전주한지를 삽입시키므로, 후손들에게 기록문화유산으로서의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지에 대한 관심 유도 및 향후 전국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